"북핵 초당적 대응 당부" "민생경제·국민의견 전달할 것"

朴대통령-여야 3당 대표 오늘 청와대 회동…무슨 얘기 나눌까

4국 정상과 회담 결과 설명

"만남과 소통 자체가 큰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진행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야당 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들과 가진 연쇄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만남은 '분기별 여야 3당 대표 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안보' 메시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동과 관련, "비상인 민생경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일부 최고위원들이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청와대 회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의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이니만큼 안보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더민주는 민생경제 얘기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 "제 말씀을 다 드리고 국민의 소리도 말씀드릴 것으로, 대통령도 어떤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만남과 소통 자체가 큰 성과로, 이것이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어떤 의제를 언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금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다시 핵무장론 띄우기

이정현 "강도 높은 조치 강구해야"

야권 "무책임한 군비경쟁" 비판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강도 높은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사실 항상 예외로 했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을 지칭한 것으로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 쟁점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의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핵무장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오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핵 무기 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 대변인은 "북한의 5차 핵 실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행사 참석으로 세종시에 있었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 행사 참석 중이었다"며 "NSC는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열리는 등 정부는 늑장대응에 허둥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간 40조원이 넘는 국방·정보 예산을 쓰면서 이런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도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북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에서 우리 영토 내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주차장에서 전기차 소울을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교체는 숙명적 과제…통합이든 단일화든 길 보일 것"

광주서 전기차 몰며 대선 행보…"호남 도움 되는 정책 실천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정권교체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숙명적 과제인 만큼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이런 간절함을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단일화 상대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내년 대선에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데 대한 답이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의 취지에 대해 "요즘 전국 여러 곳으로 다니고 있고, 많이 다니고 많이 들으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광주민심', '호남민심'을 많이 말하는 것 보다 저희가 더 겸허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광주나 호남에 도움이 되는 비전이나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광주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민주와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광산구 오선동 그린카진흥원과 충전시설이 설치된 광주시의회 주차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당 대표할 때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연 바 있다"면서 "두 사업은 지난 번 대선 때 광주지역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과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전기자동차를 몰고 서구 무각사까지 10㎞를 거리를 직접 운전한 뒤 충전까지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크린카진흥원 방문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양향자 더민주 최고위원, 오일근 그린카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지역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원에서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오카리나 1만5000명 연주에 참석한 뒤 말바우 시장 등지를 돌며 추석 민심 탐방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찾은 김종인 "남은 정치인생 사회 화합·경제민주화에 진력"

'마음돌봄 어울마당'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우리 사회 화합과 모든 사람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데 남은 정치인생의 총력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마음돌봄 어울마당' 행사에 참석해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의 촉매작용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서서 뜻깊다"며 "우리 사회의 경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돼 사회병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가 참여해 정보·체험·상담·교육 등 4개 주제관에서 45개 부스를 운영했다.

기념식은 광주시, 빛고을 생명지구대, 광주 생명의 전화, 31사단 군악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생명 지키기 선언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최명길 의원,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조선연구원

세계 조선 1위 대한민국을 이끈 특급인재, 귀하를 초대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해온 분야, 앞으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세계 조선 일등을 만든 열정과 노하우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잡으세요.
세계 조선 1위 대한민국의 주인공,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국비지원] 2016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조선연구원이 조선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도와드립니다.

01 재취업 희망자 채용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소속	근무지	급여
설계 연구 생산 기자재·ICT 관리 영업	300명	중소조선연구원	중소·중견기업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국비 인건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 채용절차: ①지원서 접수 → ②심사·평가 → ③채용(퇴직자와 중소·중견기업 1:1 맞춤 결정)

02 기술지원자문단 채용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소속	업무 내용	자문비
기술지원 자문단	106명	중소조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군산대학교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및 컨설팅 (기업 멘토링, 애로기술자문, 원포인트 지원)	'조선산업퇴직 인력지원단' 규정에 따름

※ 기술지원자문단: 조선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퇴직자를 말함

03 조선산업 전문기술 교육생 모집

교육 분야	교육 내용	모집 인원
중소조선소 재취업 교육	이직과 전환에 필수적인 중소형선박 분야의 설계, 인증, 생산, 평가, 기자재 등 업종 특화 교육 지원	450
특수선 분야 재취업 교육	조선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특수선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현장 실무형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	150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재취업 교육	중·소형 선박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 교육	500
선박 ICT융합 기자재 기술교육 (선박전자장비, 항해통신장비 등)	선박항해통신장비, 선박기관전자장비, 해양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기초부터 고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무중심 전문 인력양성	200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공정관리 전문기술교육	고용기회가 높은 석유화학·발전 플랜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형 전문기술 교육	480
해양레저선박 분야 재취업 교육	고용 기회가 높은 해양레저선박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 교육	100
선박수리개조 전문기술 교육	장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선체 및 기관 수리개조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 교육	200

• 교육대상: 조선산업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 문 의 처: 중소조선연구원 콜센터(☎ 051-974-5599) / 홈페이지: http://rims.re.kr

공통모집사항
• 모집대상: 조선산업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퇴직 기준일: 2015. 1. 1 이후)
• 근무조건: 계약직(계약기간 1년 이내)
• 모집기간: 2016년 9월 8일(목) 이후 상시 모집(1차 마감 9월 21일)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 온라인접수(http://chosun.saramin.co.kr)
• 문 의 처: 중소조선연구원 콜센터(☎ 051-974-5599) / e-mail: hope@rims.re.kr

04 채용박람회 개최
조선 분야 퇴직기술자와 인력수요 중소·중견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채용, 취업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울산: 2016년 9월 30일(금) 10:00~17:00 울산동천체육관
·전남/전북: 2016년 10월 20일(목) 13:00~17:00 목포실내체육관
·부산: 미정(http://rims.re.kr 참조)
·경남: 미정(http://rims.re.kr 참조)

05 Jump-up & 힐링캠프 개최
조선 분야 퇴직기술자의 재도약과 감정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부산, 울산, 거제, 목포, 군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세부일정은 홈페이지(http://rims.re.kr) 참조